

“자산가치 없는 장비로 자산 부풀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 군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훈열) 15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를 대상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군산의료원에 대한 주요 감사 내용을 보면 이호근 의원(고창1)은 “장비가 1,000여 가지, 비품이 1,500여 가지 등 5,000여 가지 처리해야 할 것들이 병원 자산으로 잡히는데 자산 부풀리기가 아니냐”면서 “자산가치가 없는 오래된 기구나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

리하고 처리 후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420개 병상 112개 병실 수 중 2인실 이상의 비율이 너무 많다”면서 “의료원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이용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최훈열 의원(부안)은 “성과가 높을 때 직원들 간의 의식이 이완될 수 있

다”면서 “공공성을 높여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입장에서 지역복지와 안전, 생명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직장이린이집도 법적 의무사항으로 즉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호운 의원(전주1)은 자료상 착오로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업무보고 시 진료계획인원이 46만여 명에서 7월 업무보고 시 44만6,000여 명, 행정

사무감사 요구 자료에서는 36만여 명으로 제시했다”면서 “이는 지속적으로 계획인원이 낮아지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진료계획을 높이기 위한 자료 기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만 의원(군산1)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들 이용 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충계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라”면서 “공공병원으로서 군산의료원은 수익보다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우선하라”고 요구했다.

/고민형 기자



“쌀값 폭락에 살기 힘들어요” 전국농민회총연맹 익산시농민회가 15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사무실이 위치한 영동동 전자랜드 사거리 앞 인도에 나락을 쌓고 있다.

전주시, 제설장비 점검 시연회

만성택지개발지구 개설도로서

전주시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제설장비를 점검하는 시연회를 시작으로 제설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15일 덕진구 만성택지개발지구 내 개설도로(국민연금공단앞 도로)에서 시 본청 및 양 구청 제설 담당 공무원과 일반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2017년 제설대책 상황점검 및 제설장비 시연회를 가졌다.

이번 시연회는 올 겨울철 폭설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운영되는 설해대비 상황관리체계에 대한 점검과 함께 제설장비의 작동요령을 익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전주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대형살포기와 소형 살포기, 트랙터장착용 전동살포기(제설기), 살수차 등 제설차량별 특성과 운전조작 요령, 제설작업 노하우 등을 익히고, 열화칼슘 살포 등을 직접 시연했다. 또, 소형살포기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경험이 있는 공무원들이 더블캡에 장착하는 방법과 작업요령, 주의사항 등 운전 노하우를 전파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연회에 이어 제설작업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내 집 앞 눈은 내 손으로’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홍보활동도 벌였다.

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이번 시연회를 통해 제설작업 준비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다. 내 집 앞 눈치우기를 통한 시민들의 제설작업 참여 확대를 겨울철 안전한 도로환경 만듦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시민들께서는 겨울철 자동차 월동장비 체인을 확보하고 강설시 자동차에 장착하는 등 빙판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꾸지뽕열매 절도범 붙잡아

부안경찰서는 15일 150킬로그램 가량의 꾸지뽕열매를 절취한 서모씨(58, 남)를 형사입건 했다.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던 서씨는 10월 12일 부안군 변산면 소재에 식재된 꾸지뽕나무에서 시가 260만원 상당의 꾸지뽕 열매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지인 집에서 골짜채 훔쳐

진안경찰서는 15일 지인의 집에 들어가 골짜채 등을 훔친 김모씨(55, 남)를 형사입건 했다.

김씨는 9월 23일 전북 진안군 소재의 피해자 집에 들어가 시가 210만원 상당의 골짜채와 부피가 작은 물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차량서 금품 훔친 30대 검거

전주완산경찰서는 15일 식당 앞에 주차돼있는 차량을 집중적으로 노려 금품을 훔친 박모씨(34, 남)를 형사입건 했다.

박씨는 11월 6일 전주시 완산구 신천변6길 소재의 한 음식점 앞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가방 안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박근혜 대통령은 퇴진하라”

김승수 전주시장, 시민들과 함께 퇴진운동 동참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불거진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연이어 참여한 가운데 시민들과 함께 박 대통령의 퇴진운동에 계속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행보가 주목된다.

김 시장은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지난주부터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을 요구하는 시국집회에 연이어 참석했다”면서 “현 정권에 대한 시민과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조속히 퇴진할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퇴진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김 시장은 지난 5일과 지난 12일 예술·종교 단체와 청소년 등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현장에 홀로 참석했다.

이날 김 시장은 풍남문에서 새누리당 전북도당 당사까지 촛불을 들

고 가두행진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에 목소리를 높였다.

김 시장은 앞으로 열릴 촛불집회에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석할 예정이며, 이후에도 시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김 시장은 “시민은 물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세상을 순수하게 바라보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국가를 걱정할 만큼 박근혜 정권은 정권을 유지할 모든 명분을 잃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락적인 판단할 게 아니라, 퇴진을 통해 시민들, 국민들의 명령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주시장으로서,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의 품격은 어디에 있을까”

전주시민원탁회의 개최 100가지 아이디어 토론

제4회 전주 시민원탁회의가 15일 오후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전북 여성일자리센터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전주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원탁회의의 주제는 ‘아시아 TOP3 관광도시 전주의 품격을 높일 100가지 아이디어’로 관광도시 전주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그동안 시민원탁회의가 낮 시간에 열려 직장인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수렴, 이번 시민원탁회의는 저녁 7시에 개최하였으며, 실제로 20~30대 직장인을 비롯한 중·장년층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관광도시 전주’의 문제점을 원탁별로 공유하고, 문제 해결 이후의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참가자 전원이 현장 투표를 통해 이상적인 전주의 모습을 공유했다. 또, 관광도시 전주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시민 개개인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논의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원탁회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우수정책상을 수상한 3팀은 향후 시장

실로 초청해 후속 간담회를 갖게 되며, BEST 시민참여상 수상자는 일일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어 시장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갖는다.

전주시민원탁회의는 10여명의 시민기획단(단장 김장현)이 토론주제 선정, 회의진행, 결과물 도출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모든 참가자들이 민주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회의조력자)를 활용하여 의견을 종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원탁회의 때마다 매번 참여한 김승수 시장은 이날도 테이블에 앉아 시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100만 명이 한 번만 방문하는 전주가 아니라 1만 명이 100번 방문하는 전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래야 전주가 품격 있는 관광도시로 세계인들에게 입소문이 날 것”이라며 “론니플래닛 선정 아시아 3위 관광도시라는 명성을 얻은 만큼 시민들과 함께 전주를 글로벌 관광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시민들의 시장 참여 및 의견 수렴방식의 하나로 제도화한 전주시민원탁회의는 매년 2회 정도 개최되며,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은 전주시 홈페이지 ‘다올마당’ 코너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